

# 畜牛地方病 調査委員會 活動中間報告

京畿道獸醫師會常務理事

鄭 益 鎔

## 畜牛地方病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

하나의 보람있는 事業이 그 決算도보기前에 中間報告를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까닭은 결코 무슨 焦燥한 功名心에서가 아니다.

무릇 어떤 事業의 報告란 그것을 통하여 經驗을 普遍化한다는데 基本的인 意義가 있겠으나 아직도 決定的要因을 캐내지 못한채 虛空을 헤메고 있는듯한 此際에 權威者들만으로 構成된 委員會의 活動이라 할지라도 完全無缺한것이 못되는 뜻하지 않을 틈마구니에 對해 全國 會員同志諸位가 갖인 卓越한 觀察力과 創意性을 支援받자는데 이 拙稿의 懇切한 念願이 있다.

한때 女判事의 死因糾明을 둘러싸고 우리 法曹界와 醫學界를 中心으로 풀기 머물렀던 일이 있었다.

끝내는 化學的糾明의 보다 明確한 審判을 받기 위하여 外國機關에까지 依賴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其後開亦是釋然치가 않았던 模樣이다.

이와 비슷한 事蹟가 우리 獸醫界에도 惹起되었다.

京畿道始興郡君子面長谷里에서 約 五年前부터 原因모르게 畜牛가 연달라 斃死하여 조그마한 단 하나의 마을에서만 累計三〇頭의 畜牛가 죽어넘어간 事蹟가 곧 그것이다.

解放後 새로운 農藥의 撒布等으로 散發的으로는 原因을 미처 알지 못한채로 斃死한 事例가 가끔있었기는 했으나 이마을 처럼 局限된 地域에서 長久한 時日에 걸쳐 同一한 樣相에 依하여 繼續的으로 많은 畜牛를 비롯한 其他家畜이 斃死한 事例는 보기힘든 일일 것이다 勿論 그동안에 該當防疫責任機關으로 되는 京畿道畜政課나 公로롭게도 이 地帶와 同一郡內에 所在하는 安養研究所의 여러분들이 袖手傍觀한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安養研究所는 剛毅性이 많은 豫算속에서도 病原糾明을 위한 超人의인 努力을 傾注해 왔었다 그렇나 끝내 病原은 明確히 추려내어지지 못한채 艱難한 歲月은 흘렸고 被害를 연거퍼 當하는 이마을 사람들은 이런 科學的 不透明性에 失望의 氣色까지 보이기 시작하여 後進農業國 農民本來의 素性인 迷信追從의 巢어넘

기지만못할 喜悲劇을 演出하고야 말았다.

어느 서울 權勢층은 양반의 別莊이 部落民의 견디기 어려운 慘境에서 우러나오는 怨聲을 듣다못해 힐리워 버렸고 墳墓까지 파헤치려는 騷動이 이러날무렵에 4.19를 맞았다.

各處에서 연달라 이러나는 데모에 刺戟을 받은 이곳 農民들도 畜牛가 없어 廢農을 하지않으면 안될 窮地의 實情을 京畿道知事를 비롯한 關係要路에 陳情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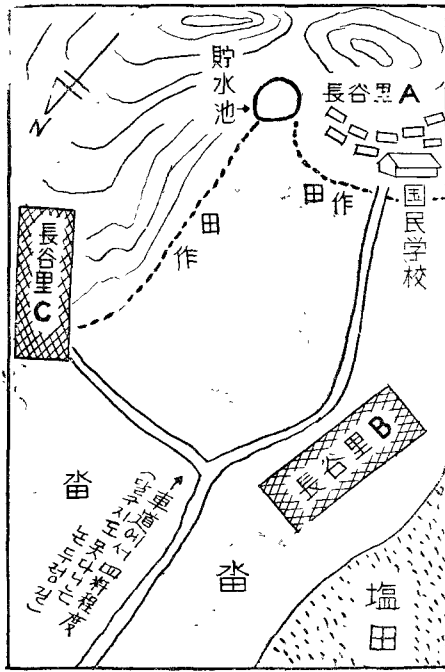
部落民의 所望은 達成되어 여기비로소 決定的인 解明을 追究하기 위한 主客觀的인 要素를 갖추게 되었다 部落에는 農民들의 窮地에 빠진 農耕을 도울兼 畜牛를 試驗動物로 入飼시켰고 新界權威나 直接事務的 關係者들로 調査委員會가 構成되었으며 過히 넘겨지는 못하나마 調査活動에 所要되는 豫算의 뒷 마침도 마련되었다.

## 第一次 委員會 (4294年2月7日)

調査委員構成을 다음과 같이하고 第1次 委員會를 農林部畜政局長室에서 開催했다.

- ① 委員長, 農林部畜政局長 (李南信)
- ② 企劃分科責任委員, 農林部獸醫課長 (金永漢)  
京畿道畜政課長 (金奎龜)
- ③ 疫學分科責任委員  
農事院家畜衛生研究所安養支所長 (李澤柱)  
京畿道家畜衛生試驗所長 (洪鍾舜)
- ④ 病理分科責任委員  
서울市立農藥大學教授 (李起豐)  
서울大學獸醫大教授 (金相男)
- ⑤ 臨床分科責任委員  
서울大學校獸醫大教授 (洪炳旭)  
" " (吳壽玉)
- ⑥ 化學分科責任委員  
國立化學研究所檢定科長 (高仁錫)
- ⑦ 顧問  
東國大學校農科大學教授 (李根台)  
서울大學校保健大學院教授 (李鑾明)

이 第一次委員會席上에서 京畿道 李範烈獸醫部長은 數次에 걸친 嚴密한 現地踏査에서 얻은 狀況報告를 하였다.



이 現地 地圖에서 보는 長谷里의 散在한 部落中에서 隣接마을은 稀은듯 아무런 害도 なく A部落만 被害를 입고 있다.

斃死하는 様相은 約束이나한것 처럼 거의 같아서 過히 甚한 症狀도 나타나지 않고 죽기前的 한끼 飼料를 좀 시원하게 먹는다 싶으면 이내 牛舍에서거나 아무렇지 않게 논가리하는 野外에서거나 폭겨꾸러져 죽는다는 것이다.

그 年度別 및 畜種別 被害狀況을 보면

畜種 年度別	牛	豚	犬
4 2 9 0	6	50	10
4 2 9 1	3	20	10
4 2 9 2	15	50	
4 2 9 3	0	40	6
4 2 9 4	4	20	1

연이어 安養研究所 朴東權技佐로부터 其間의 研究狀況에 對한 說明이 있었는데 疫學의 으로는 아무런 異常을 發見 못했고 胃內容物은 化學研究所에 分析依頼해 왔으나 아무런 害毒의 인 것을 發見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 說明이 끝나자 李起豐委員으로부터 病理學의 研

究所見에 對한 質問이 있어 이分野에서의 從前의 盲點을 서로 自認하여 앞으로는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에서 이일을 專擔토록 決議하였다.

大體로 이날 各委員間에 檢討된 死因糾明의 方向設定은

- ① 飼養 管理狀況의 特異한 盲點
- ② 農藥撒布의 途波
- ③ 地質, 水質, 草質(毒草分布)의 影響
- ④ 어느 特異精神異常者나 犯罪意識을 갖인者의 繼續의 所行

等으로 區分해 볼 수 있었다.

※ 現地踏査(2月13日)

이러한 概況把握을 한 委員들은 自身들의 直接的인 現地踏査를 통해 앞으로의 調査事案에 必要한 具體的基礎資料를 얻고져 했다.

이날 現地로 出向한 委員들은 途中 富川郡蘇來面水利組合(長谷里蒙利區域)에 들러 4291년부터 4293년 사이에 長谷里에 配布된 農藥의 種類와 量을 調査한바 「푸라들」等으로 致死를 招來할 만한 有毒性 農藥配布數는 적은 편이며 그것도 人畜에의 被害를 細心히 注意하여 組合職員이 直接撒布했다는 것이다.

現地에 到着한 委員들은 部落民들로부터 其間의 實情을 直接聽取하고, 地形交通, 放牧地, 우물 鹽田, 美軍駐屯狀況等을 調査하였다.

當時 部落內의 家畜飼養狀況은 畜牛一, 豚, 犬이 數頭, 鷄 40首程度였다.

이날 現地住民들의 「소가 죽게되는 前後에는 반드시 우물물이 구린내가 난다」는 말에 關心을 갖인 委員들은 우물물을 떠다 마셔보았는데 果然 물은 알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 第二次委員會(2月17日)

一次委員會後의 現地踏査資料等을 主臺로 第二次委員會가 열렸다.

여기서 注目할 點은 疫學分科의 李澤柱委員과 化學分科의 高仁錫委員의 相反된 거의 確信에 찬 見解發表였다 前者는 死因을 疾學上으로 오는 것이 아닌 農藥, 葯劑等으로 보고 後者는 農藥, 葯劑等의 性質과 致死量等에 對한 細密한 說明을 통하여 決코 中毒死는 아니니 繼續 疫學의 으로 細心한 研究를 主張하는 對決이었다.

아무튼 各分科別의 보다더 專門의 이고 有機的인 研究活動을 더욱 積極化해야 한다는 結論을 맺은다음 試驗動物入飼(畜牛 10頭, 豚 5頭)와 現地에의 獸醫師配置問題를 決議하였고 中毒死에 對한 테타作成을 위해 投藥試驗(犢 3頭, 仔豚 5頭)을 獸醫科大學에서 實施키로 하였으며 現地斃死動物도 獸醫科大學까지 運搬하여 剖檢토록 決議하였다.

3月22일에 試驗動物入飼를 完了한지 2日後 現地部落

으로부터의 患牛發生에 對한 急電이 있어 安養과 서울에서 各各 2臺의 車에 分乘한 關係員들이, 물러다켰으나 腸炎으로 因한 慢性下痢로 호랑이 사냥꾼들 膾炙人口도 못잡고 도라선 格이 되고 말았다.

3月28日에 獸醫科大學出身인 新銳金澤洙獸醫師가 現地に 起用配置되어 基本的인 調查布陣이 거의 完了되었다.

※第一次斃牛剖檢

5月22日 午後 10時頃 發病한 畜牛(牡 4歲) 1頭가 同日 午後 5時頃 斃死하였다. 5月23日 正午부터 獸醫科大學 病理解剖教室에서 尹快炳, 李起豐, 朴東權, 三氏의 責任 執刀아래 剖檢이 實施되었다. 肺充血, 腎出血斑點, 大腸出血等을 볼수 있었다.

安養研究所 및 京畿道家畜衛生試驗所들에서 各各 可檢物을 採取했고 化學研究所에서 有毒性 物質分析을 위한 胃內容物을 採取했다.

剖檢의 綜合所見으로써는 急性鼓脹症으로 내려졌다.

5月29日 安養研究所로부터의 可檢物檢査結果報告에는 陰性으로 나타났다.

※第二次斃牛剖檢

5月31日 午前에 發病, 同日 午後 3時頃에 斃死(牡 4歲)하였다.

現地 獸醫師의 報告에 依하면 每日 檢溫等을 中心하여 臨床的으로 別無異常이었고 食欲도旺盛하며 使役도 잘하였는데 논가리中 벼란간 거름을 밭추기에 牛舍로 끌고오니 頭部를 뜯어 부딪친後 悲鳴을 지르며 急死했다는 것이다.

第1次剖檢에와 마찬가지로 거의 全委員들이 參集한 가운데 剖檢이 實施되었다.

大體로 別異常은 發見할수 없었고 慢性腸炎으로 볼수밖에 없었다.

※第3次委員會(6月23日)

斃牛2件과 其間의 現地諸狀況을 綜合檢討하기 위한 第3次委員會가 農林部會議室에서 열렸다.

京畿道家畜衛生試驗所와 安養研究所에서 各各 細菌檢査 및 動物接種試驗結果 陰性임을 報告했고 國立化學研究所에서도 分析結果異常發見未하였음을 報告받았다. 李起豐委員으로부터 第 1次斃牛는 鼓脹症에 依하고 第2次斃牛는 中毒에 依한것 같다고 報告하였고 洪炳旭委員으로부터 보다더 徹底하고 꾸준한 臨床的 觀察이 必要하다는 提意가 있었고 餘他 몇몇 委員들로부터 投藥試驗을 早速히 實施해보자는 意見들이 나왔다.

그리하여 現地畜牛에 對하여 1個月에 1回씩 尿, 血液檢査를 할것과 現地の 草質, 土質, 水質檢査를 實施할것等을 決議하였다.

※現地草質, 土質檢査(9月10日)

現地の 草質 土質等을 中心한 諸狀況을 調查코저 서울大學校農科大學 李甲斌, 陸鍾陸兩教授가 現地に 出向하였다.

이날 採取한 數個의 土壤標本은 水原農事試驗場으로 送付 分析依頼하였고 兩教授들이 有害草로 採取한 標本들은 成歡畜産技術院으로 送付依頼하였다.

이날의 現地踏査結果에 對한 兩教授의 所見을 서울大學校農科大學長은 京畿道知事 앞으로 다음과 같이 通告하여 왔다.

(1) 飼養管理指導面으로본 當面緊急對策

① 다른 地方에 比하면, 毒草, 有害草가 많이 分布하고 있어오니 部落民에게 어떤것이 毒草이고 有害草라는 것을 實地教育시켜 조금이라도 덜먹이게 할것.

(筆者註=陸教授의 말에 依하면 有害草에 依한 微量原素蓄積死를 招來할수있다는것)

② 생풀, 乾草 및 거머위는 삶아먹이지 말고 生食시킬것이며 콩깍지같이 딱딱한 飼料에 限하여 뜨거운물에 불려먹이게 할것

③ 물은 반드시 끓여먹이고 바닥에가라 앉은것은 먹이지말것 約6個月間만 實施해볼것

④ 變하고색은 고구마와 變한녹두, 콩, 둥부겉질을 먹이지 않도록할것

(2) 根本原因 糾明에對한 對策

① 其部落에서 生産되는풀, 벼질, 콩깍지, 및 흙에 對하여 No.2 No.3 Cu, Zn Hg, As 등의 化學的 成分의 含量을 分析調査할것

② 其部落의 소에 對하여 赤血球數, 白血球數, 血液素量, 白血球의 種類別數 및 Methemoglobin의 含量을 調査할것

③ 其部落의 소가 從前의 죽은소와 같은 症狀으로 죽는것이 있을때는 그소의 血液에 對하여 No2 Hg As 및 Methemoglobin의 含量을 調査할것

④ 可能하면 獸醫技術者를 其部落에 駐在시켜 每週三四次 部落全體소의 헤모글로빈量 赤血球數 白血球의 種類別數 體溫, 呼吸數, 脈搏數, 糞性狀, 尿性狀, 食欲, 結膜色等을 調査시켜 죽은소의 죽기前 症狀을 確實히 把握토록 할것

前記한바 農事試驗場과 畜産技術院으로 부터의 分析結果가 到來하면 委員들은 其間의 各分科別로되는 調査結果를 綜合하기 위하여 不遑第4次 委員會를 열것이다.

書頭에서도 言及한바 있거니와 부디 全國 會員同志여러분의 이 調査事業의 早速한 成果達成을 위한 積極的參與와 助言을 再參呼訴하는 바입니다.